

농촌구조개선을 위한 농촌지도사업의 역할

임 상 봉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연구원

The Roles of Rural Extension for the Structural Adjustment of Rural Korea

Sang Bong Im

Rural Research Institute, Rural Development Corporation

Summary

The rural extension in Korea faces transient period since Green Revolution. The urban-centered rapid industrialization policies have initiated the changes in rural and agricultural sector. Nowaday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newly established by the agreement of the Uruguay Round (UR), is accelerating the changes in rural areas.

The rural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established in 1990, in order to cope with the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encompassing rural Korea. The rural structure adjustment program is a political responses to reduce the development gaps among industries and regions within the country and to reinforce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al products toward trade liberalization.

This study aims to apply the contents and principles of the rural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for the extension education. It argues that the rural extension should play a pivotal role to gather, process, and deliver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rural structural adjustment initiating rapid rural social changes. It suggests that the rural extension services should deal with the development of industries through introducing business management techniques and linking relevant laborers, and the education and employment guidance of potential employees as well as the technological assistance on farm management to farmers.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농촌지도사업은 녹색혁명에 의한 식량증산이라는 국가적인 과업을 수행한 이후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 고일웅 (1994: 11)은 1980년대에는 비닐농법의 확산을 통한 백색혁명, 1990년대는 개방화에 대응한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는 것으로 농촌지도사업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농정의 전환기마다 농촌지도사업의 역할 정립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비단 농법이나 농업 경영 방식이 급격히 바뀌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

라고 생각한다. 농업생산기술과 경영기술의 혁신과 보급에도 계속 노력을 경주해야겠지만, 농촌개발을 위한 주민의 새로운 요구충족을 위한 역할도 수행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업경영기술 전파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컴퓨터 도입 등 정보전달 수단의 발달로 농업경영 기술혁신 전파를 위하여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농촌발전을 위한 농촌지도사업의 시대적 역할은 농업지도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농촌개발에 관한 효율적인 정보관리와 전달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그 역할을 정립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국내 농업과 농촌의 발전과제는 급격히 변화할 수 밖에 없었다. 도시 중심의 고도성장이라는 대내적 상황이 농촌사회 변화를 주도하였고, UR타결에 따른 WTO체제의 출범은 이를 가속화시켜 왔다고 하겠다. 이러한 일련의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1990년대의 농정전략은 농촌구조개선으로 집약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업영역을 농업생산 및 경영분야는 물론 농촌개발 또는 농촌구조개선사업 분야로 확대해 나갈으로써 농촌지도사업의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농촌지도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일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농촌구조개선이라는 농정목표 하에서 농촌이 사회, 경제적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지식과 정보가 새로운 것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농촌주민의 요구도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농촌지도사는 아는 자이고, 농민 또는 농촌주민은 모르는 자라는 전통적인 의미¹⁾의 교육자-피교육자의 관계는 약화된다. 대신에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성은 증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는 농촌지도사가 급격한 사회변화 과정에서 농촌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정보 또는 교육내용을 시의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느냐 또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었느냐에 있다. 농촌지도사업이 농업을 포함한 농촌개발 관련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농촌주민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갖춘다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농촌개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제공하는 기능을 구축하는 것은 농촌사회과학분야에서의 일종의 기술혁신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각종 개발관련 기관(institutions)의 정체성 문제는 비단 농촌지도기관만의 문제는 아니다. 농촌 분야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사회의 변화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상황에서 나타나는 총체적인 적응지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외부상황 탓으로만 돌리면 내부적으로는 대처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게 된다.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농촌지도조직 내에서도 개선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

농촌구조개선은 한 마디로 1990년대의 농촌개발에 대한 정책적 대응논리라고 볼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산업간, 지역간 개발격차를 빠른 시일 내에 줄이려는 목표가 들어있고, 대외적으로는 농산물 무역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속히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함축되어 있다. 이 연구는 농촌개발과 농촌구조개선의 논리체계와 그 내용을 농촌지도사업에까지 연계시키는 데 주요 목표를 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급격한 농촌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농업구조개선 정책 하에서 농촌지도사업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개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실증적인 검증보다는 이론적인 논리체계에 의한 농촌개발 또는 농촌구조개선에 대한 가설적 이론 제시와 이에 대한 농촌지도사업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실증적이 아닌 이론적인 연구이며, 농촌개발에 대한 이론적 틀을 토대로 한 논리적 추론에 의존하여 내용을 전개하였다. 이는 검증이

¹⁾ 여기에서 전통적인 의미라고 함은 오늘날 사회교육에서 교육자와 학습자의 관계가 상호 대등함을 강조하는 것과 대비시킨 것이다. 이 때 성인교육자 또는 사회교육자라 함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는 자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다.

전 단계에서의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개념적 구조화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저변에 깔고 있는 가정은 농촌개발이나 농촌구조개선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개자 및 변화촉진자의 입장에서의 농촌지도사업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며, 농촌지도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목표로 하는 농촌개발 또는 농촌구조개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연구의 범위

농촌개발 내용을 개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다룬다. 개발사안별로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다루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각각의 구체적인 개발사항에 대한 지도사업의 역할이나 추진방법 및 추진전략 등은 후속연구에서 차차 밝혀져야 할 것이다.

II. 농촌구조개선의 주요내용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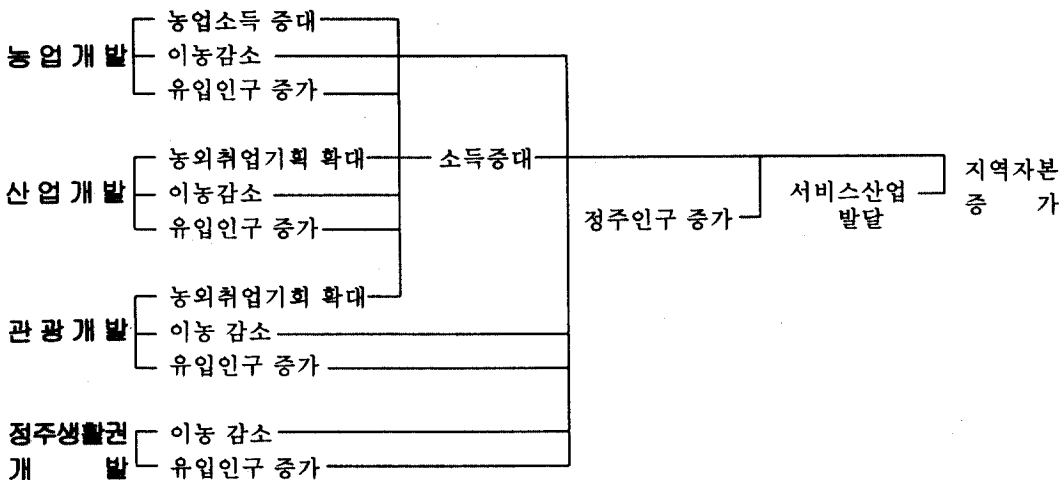
1. 농촌구조개선의 주요내용

농촌구조개선은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대책

에서 정책과제로 제시된 이후 줄곧 농정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1990년대의 농촌개발에서 요청되는 시대적 과제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농촌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일종의 정책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주요 내용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산업유치와 농업개발 및 관광개발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농업개발은 다시 정책적인 대응 측면에서 농업구조 개선사업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비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생활환경 개선이 개발사업내용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농촌지역사회에 대한 산업유치 전략은 농촌공업화 정책과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 농업개발을 위한 농업구조 개선사업은 농업경영규모 확대를 위한 농지규모화 사업으로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다. 관광개발 전략은 관광농원개발과 농어촌휴양지 개발사업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촌의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농촌개발 또는 농촌구조개선의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농촌구조개선의 이론적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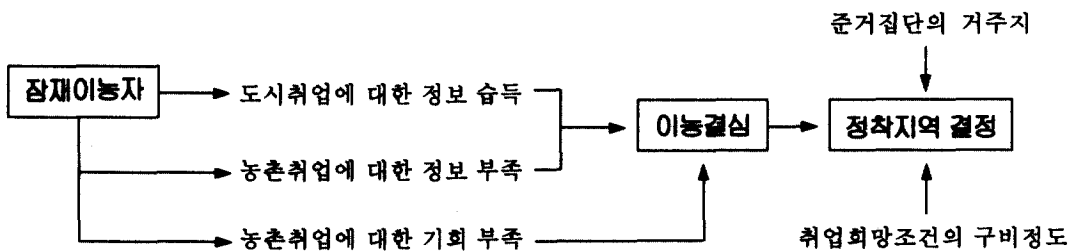
지역에 따라서는 인구가 증가하지는 못하고, 감소율을 떨어뜨리는 정도의 공헌밖에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주민구 증감률을 결정짓는 것은 농촌내부의 개발정책 및 개발전략 외에도 외부 도시의 흡인력에 좌우 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도시와 농촌의 흡인력과 배출압력은 연령층 등 각종 인구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각 개발 사안별 구체적인 대상집단을 공략목표로 두고 인구유치 전략을 세운다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농촌구조개선의 과제

농촌구조개선의 과제는 한 마디로 농촌에 사람들이 생활에 만족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촌인구의 압출요인을 줄이고, 도시로부터 농촌으로의 인구유입을 늘리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에 와서 농촌인구의 이농률이 감소하였다고 해서 농촌이 살기 좋아졌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농촌의 발전 정도와는 크게 상관없이 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의한 생활비 상승으로 도시진입 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농촌인구 중에서

이농에 유리한 집단의 구성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러하다면 농촌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주요 이농대상집단의 이농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는 동시에, 도시거주에 따른 유리성이 감소한 집단이나 농촌거주 또는 농촌투자를 희망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농촌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농촌주민의 생활수준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더욱 벌어져 지역간 발전의 이중구조가 심화된다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은 분명한 일이다.

따라서 농촌구조개선이라는 정책목표의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에 인구를 유치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농촌 정주민구 감소에 대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론을 포함하는 인간행동이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촌인구의 주를 차지하는 집단이 고졸자라고 볼 때, 이들이 어떤 의사결정 경로를 통해서 이농하는가를 모델화 해 보고, 이들을 농촌구조개선과정에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촌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동 모형을 가설적으로 설정하여 제시한 것이 <그림 2>이다.



<그림 2> 이촌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동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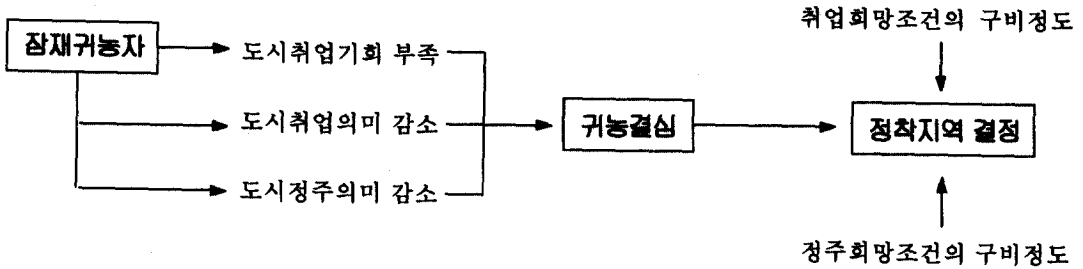
한편, 도시민이 농촌으로 진출하는 경로는 이촌에 대한 의사결정/행동 모델과는 양상이 다를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론화 및 모델화와, 이에 기초한 도시민의 농촌 유치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도시민의 귀농에 대한 가설적인 모델을 제시해 보자면 <그림 3>과 같다.

따라서 위와 같은 농촌구조개선 모델과 이농 및 귀농에 대한 의사결정/행동 모형을 토대로

하여 볼 때, 농촌구조개선의 주요 과제는 크게 보아 농업과 공업 및 관광산업의 육성을 통한 농촌취업기회의 확대와 생활편익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자연경관을 살리는 정주생활권 개발로 요약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잠재 이농 집단이 이농 전에 농촌의 재촌 취업기회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취업알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민이 기업가 또는 자본가로

서 공업, 관광 및 농업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촌이 가진 자연환경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산업개발과 주거지 개발을 추진하여 휴양을 주목적으로 농촌에 정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 3〉 귀농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동 모형

Ⅲ. 농촌구조개선을 위한 농촌지도 사업의 역할

농촌구조개선 과정에서 농촌지도사업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적절하게 자리매김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농촌구조개선이 정책목표로 설정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농업 및 농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 관리하면서 고객집단인 농촌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지도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농촌정주인구 감소와 농촌저발전의 악순환 구조를 끊고자 하는 것이 농촌구조개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농촌저발전 문제의 해결은 어느 개인의 성장이나 노력만으로는 안되고, 정책의 수립과 실행의 변화를 수반하는 거시적인 노력이 병행될 때 가능하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농촌지도사업은 이와 같은 정책이 구체적인 정책 목표 집단에게서 실현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즉

현 시점에서의 농촌지도사업은 농촌구조개선이라는 시대적 정책목표가 실현되도록 정부와 농촌지역사회 주민 또는 고객집단간에 정보격차를 줄이고, 정보교류를 촉진시키며, 각각의 요구를 파악·분석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농촌지도 (rural extension)란 농업지도 (agricultural extension) 이상으로 농촌개발 또는 농촌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며, 이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농촌개발 관련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농촌지도사업은 지난 70년대의 녹색혁명과 함께 쌀 증산기술 위주로 전개되어 오다가, 80년대의 전환기를 거쳐 농업경영 중심의 지도사업으로 방향이 바뀌어 오고 있다. 지도방법도 농민을 가르치는 방식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다양한 요구를 가진 농민에게 제공하여 농민들이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제 농촌지도사업이 각종 개발내용을 연계해 주고 정보를 관리하며, 제공해 주고, 요구를

수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농업지도사업만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농촌지역의 개발 및 구조개선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 외에도, 산업체 육성, 진로지도 및 취업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측면에서의 요구분석, 사회구조 분석, 경영측면에서의 내용분석 및 제공과 정보관리, 사회교육 측면에서의 정보제공 기법 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농촌지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전문분야의 협력과 팀 구성 운영 및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농촌지도사업에서 앞으로 요구되는 큰 기능 중 하나가 정보제공 기능이라고 볼 때, 정부와 지역사회 주민이 직접 대화하면 되지, 정보고속화 시대에 농촌지도소라는 제3의 기관을 통하여 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하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과거에 식량증산기술 전파 위주의 농촌지도사업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역할이 감소했던 것처럼, 정보화가 더욱 고도화하고, 정보통신 이용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그러한 중계기능도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나면 언젠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연구기능이 가미된 지식정보 제공기능은 쉽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앞으로 점점 그 기능이 확대되어야만 하리라고 판단된다. 농촌지역사회개발 이론에 기초한 각 지역사회의 발전상태 검증, 개발대안 제시, 지역사회개발 이론에 기초한 농촌주민의 요구분석과 정부정책의 타당성 검증, 새로운 정책대안 및 기존 정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포함)의 개선사항 제시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및 지역사회개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확보되어 있는 지역사회 정보센터로서의 농촌지도소는 정확성 있고 신뢰성 있는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요구를 가진 고객집단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촌개발과 관련된 정보수요자와 공급자를 상호 연계시켜 주는 중계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연구개발의 본부적인 농촌진흥청은 각 지역사회의 정보와 정부 정책에 대한 정

보를 분석하고, 가공함으로써 고부가가치화된 양질의 지식정보를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나오는 이론을 겸비한 기술, 정보, 지식은 농촌지도소의 정보제공 기능의 방향을 선도해 나가게 될 것이며, 각 농촌지역사회 지도사업의 원천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농촌지도사업 측면에서의 농촌구조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해 보자 한다. 농촌인구의 이농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취업을 확대해야 한다. 그런데 주요 이농집단인 고교 졸업자의 재취업률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마땅한 취업자리가 없어서 이농을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또 재취업 전략을 편다고 해도 이들을 모두 농촌에 묶어둘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자를 목표집단으로 하는 취업알선 전략이 농촌지역에 존재하지 않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만일 농촌지역 기업체 정보와 취업정보를 관리하고, 입주예정 기업체의 인력 고용에 관한 정보까지 관리하며, 이를 홍보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과정을 안내하고, 취업을 알선한다면 젊은층의 농촌취업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정보관리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도시에 있는 기업가들도 농촌입주에 대한 태도가 크게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촌취업기회 확대에 대한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기업가와도 접촉이 필요하다. 농촌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의 희망지역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분석, 관리하여 관련 정보를 농공단지 조성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앞에서 언급한 농촌 청소년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과 연계되는 일이기도 하다. 농공단지의 분양률은 1991년까지는 80% 이상을 유지하다가, 1992년부터는 80%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데 <표 1 참조>, 도시 기업가에 대한 농촌입주 수요조사는 이를 높이는 데에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진흥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시험연구사업의 업무 범위에 농업경영은 물론 “농촌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라는 항목이 들어 있다 (윤여학,

<표 1>

농공단지의 분양 현황

연 도	지정단지 수	분 양 현 황		
		분양 대상면적(평)	분양면적(평)	분양률(%)
1984	7	136,995	136,995	100
1986	24	670,574	668,468	100
1987	46	1,959,119	1,952,367	100
1988	45	1,754,939	1,751,309	100
1989	47	1,668,192	1,498,580	89
1990	48	1,821,431	1,672,925	92
1991	26	921,917	764,390	83
1992	7	292,962	207,167	71
1993	13	407,434	372,718	79
1994	6	150,716	111,490	74
합 계	269	9,867,279	9,136,493	93

출처: 농어촌진흥공사, 농공단지 지정 및 개발 현황, 농어촌진흥공사, 1994. 12. 31.

1994: 172-174). 최소한 농촌지도사업에서의 연구능력이 농업지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제2항의 지도사업의 업무범위에서는 농업, 농민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제2호에 농촌의 부업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의 보급이라는 항목이 있고, 제5호에 농민의 자력 또는 보조에 의한 시범농촌 건설사업의 조성이라는 항목이 있다. 물론 부업이라는 표현이나, 시범농촌 건설사업이라는 표현이 시대적인 변화를 뒤쫓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6호에 앞의 5호까지의 사업수행에 관련된 업무라는 항목이 있으므로 상황변화에 따른 농촌공업화와 관광산업 육성 및 정주생활권 개발과 관련하여서도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라든가 관리하고 제공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규정들을 시대변화에 맞게 고쳐나간다면 새로운 지도사업의 역할을 정립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농촌지도사업에서는 기업경영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농업경영은 물론 나아가서 제조업, 유통업 분야 등의 기업경

영에 관한 내용도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농촌개발 관련 제도는 물론 국제무역에 관한 제도 및 규정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 기능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업무전산화의 진전과 함께 농촌개발 관련 고객을 대상으로 농지, 대지, 임야 등을 포함한 토지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기능도 부분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농촌지도소는 농촌개발과 관련하여 지역 사회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며, 사회 과학 분야에서도 연구개발 노력을 통하여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혁신사항을 제공할 준비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농촌진흥청이나 농촌진흥원 및 농촌지도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는 지역사회개발 이론이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다. 농촌지도소의 정보제공 기능만으로 보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컴퓨터의 발달로 업무담당 인력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나, 지역사회 조사, 주민 또는 고객집단의

요구조사, 분석 기능의 확충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는 기존의 업무와는 다른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는 지도사의 인력은 지속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가 필요할 것이다.

농촌지도사업이 농촌개발의 영역을 적극 수용하고, 정보제공 서비스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촌개발 및 농촌구조개선의 논리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아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지도방식에 있어서도 과거의 일방적인 가르치는 방식에서 다양한 요구를 가진 다양한 수요자 또는 고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전산화가 필수적이며, 농촌지도사에 대한 재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그 교육내용에는 기존의 기능을 숙련시키는 것과 새로운 혁신사항을 도입하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정보전달 체계가 전산화 방식으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교육도 새롭게 담당해 나가야 할 분야가 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농촌지도사업이 사회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재적소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에서 사회과학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기술혁신을 끊임없이 이룸으로써 교육내용, 즉 가치 있는 정보를 창출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화하여 정보전달을 효율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분야의 재편도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농업생산기술 분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대신 농업경영분야는 물론 제조업, 관광 등 농촌산업분야 등의 정보관리에 대한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농촌지도사업의 역할과 기능이 급격히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는 농촌지도사에 대한 교육의 강화는 필수적인 사항이 될 것이다. 정보전달 매체의 변화에 따른 농민과 비농민 등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새로운 기술, 정보, 지식을 제공하고 전달하는 농촌지도사업의 본질적인 기능은 계속 유지해야 하겠지만, 그 전달내용은 국내외 상황변화와 고객의 요구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농촌개발을 지원하고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심 역할이라고 볼 때, 농업기술지도 뿐만 아니라 농촌구조개선에 관련된 비농업 분야의 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이 농경사회를 지나 산업사회 또는 후기산업사회에서의 농촌지도기관의 위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생산과 관련된 신기술 보급은 물론이고, 가공·유통을 포함하는 농업경영에 대한 교육이 지도사업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농촌공업화, 관광산업 개발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전달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되, 일상적인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화 중심의 정보관리 및 제공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지도사의 정보관리 기능과 정보전달 기능 및 지역사회 조사와 주민요구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가공을 통한 새로운 정보창출 및 고객간 상호연계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 어떤 자료를 수집·가공하고, 관리하며, 제공할 것인가는 농촌개발 또는 지역사회개발 이론이 안내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농촌구조개선을 위한 농촌지도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한 예이다. 또한 지역사회개발 시각은 현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게 되어 현장중심의 지도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각종 혁신사항의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농촌구조개선의 핵심이 농촌을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때, 농촌지도사업을 통하여 각 지역사회의 실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농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방

안을 모색함은 물론, 제조업 및 관광분야의 산업개발과 관련하여 입주희망자를 물색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등 농촌정주를 유도하고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농업과 제조업 및 관광 등의 산업이 농촌현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과 정보를 지원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 추세에 부응하여 국제무역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농업을 포함한 농촌의 각종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존립할 수 없게 되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농촌산업이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통한 적극적인 활로모색도 필요하다.

V. 참고 문헌

1. 고일웅, "농촌지도사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농촌

- 지도학회지, 제1권 제1호, 1994. 6., pp. 11-13.
2. 김성일, "일선 농촌지도직 활성화를 위한 방안,"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1권 제2호, 1994. 12., pp. 193-195.
3. 농어촌진흥공사, "농공단지 지정 및 개발 현황", 농어촌진흥공사, 1994. 12.
4. 윤여학, "농촌진흥법 개정,"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1권 제2호, 1994. 12., pp. 165-189.
5. 임상봉, "농촌발전의 구조적 변혁을 위한 농지유동화 정책의 방향," 농촌사회 제4집, 1994, pp. 191-126.
6. 임상봉, 정지웅, "농촌지도사의 역할갈등 및 역할 모호성과 직무만족도와 의 관계,"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20권 제1호, 1988, pp. 9-17.
7. 최영찬, "정보화시대의 농촌지도사업,"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1권 제1호, 1994. 6., pp. 29-36.
8. Munch, Richard, *Theory of Action: Towards a New Synthesis Going Beyond Parson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Kegan Paul, 1987.